

Elaine Phillips 박사, 에스더, 강의 4

© 2024 Elaine Phillips 및 Ted Hildebrandt

우리는 이 시점에서 크세르크세스 왕의 침실에 있고 하만은 방금 모르드개의 최후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특권은 왕의 관심이 먼저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이 여기서 모르드개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것은 섭리적인 일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하만에게 영향력 있는 지위를 주었다면 모르드개에게는 병이 들었을 것입니다. 왕이 존귀함을 기뻐한다는 표현이 하만의 마음에 굳게 박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맛본 다음, 자신이 가정한 대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 반복해서 그것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하만의 인물은 전체 서사를 통틀어 가장 투명하게 드러나는 인물이다. 여기에서 청중은 그의 가장 깊은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우리는 그들의 지나친 자부심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의 NIV 번역은 다음 절에 붙여서 매끄럽게 번역했지만 사실상 독립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하만은 왕이 존경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즐겼고 8절에서는 그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영예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왕이 존경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을 계속해서 엮어 놓으십시오.

이것은 그에게 연습 세션이었습니다. 그는 모르드개를 언급하면서 그 소식을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에는 왕에 대한 하만의 반응에 세 가지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각 요소를 점점 더 자세하게 반복하여 왕이 자신의 조언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도록 의도했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왕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 왕권과 지위의 상징을 공유한다는 공개 선언이 있어야 했습니다. 왕의 말과 왕의 의복은 모두 왕이 직접 사용했던 것이어야 했습니다.

상당한 수준의 주권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하만이 제안한 대로 이 퍼레이드는 거리를 통과하는 퍼레이드가 아니라 도시 광장에서 고정 시위를 벌이는 것이라고 제안되었습니다. 타고 지나갔다고 번역된 동사는 오르다로 동일하게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하만이 공개적인 명예 행위로 모르드개를 높이도록 요구되는 상징적 지위를 암시합니다.

이 말은 왕이 탄 말이었으므로 그 영예와 하만은 그 말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여 왕의 영광과 존귀를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말의 머리에 있는 왕관인 문장은 근동 예술에서 특이한 장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머리 장식은 대영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니네베 궁전의 아시리아 부조에 정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말의 머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페르세폴리스의 부조에서 알 수 있듯이 페르시아 시대까지 계속되었습니다. 6장 10절.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곧 가서 겔옷과 말을 가져오고, 대궐 문에 앉아 있는 유대 사람 모르드개에게 네가 말한 대로 하라. 당신이 추천한 어떤 것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모르드개의 말을 들은 유대인은 하만의 존재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다른 모든 이름보다 그 이름을 경멸했으며, 모르드개는 그의 생각에 감미로울 정도로 종말이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공개 영역에서는 이 시점에서 줄거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는 말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청중의 상상에 맡기는 것이 많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왕은 모르드개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멸망받을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잇을 수 있었습니까? 이제 모르드개의 신분이 역대기에 기록되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출처가 될 것이지만, 상황을 분명히 알고 있던 시종들이 이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왕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더 큼니다. 하만은 자신이 명령할 대상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므로 왕은 모든 더러운 일을 하만에게 맡겼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이라는 법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세르크세스는 그 본문을 읽는 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사건은 중요한 모든 것을 놓칠 수 있는 그의 능력을 강력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무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왕의 하만에 대한 작별 인사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떨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며, 이는 하만 자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비추어 볼 때 예지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만의 긴 설명이 끝난 후, 실제 의식은 마치 하만이 가능한 한 빠르고 형식적으로 행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처럼 아주 경제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해설자는 도시 광장에서 일어난 사건이 하만과 모르드개 모두에게 어땠는지 청중의 상상에 훌륭하게 맡깁니다. 왕은 하만과 모르드개 사이의 반감을 몰랐을지 모르지만, 그 광경을 지켜본 공공 장소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전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선포가 계속해서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최고의 굴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존경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피할 수 없을 것 같고 치명적인 법령이 아직도 많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르드개에게는 그것이 잔인한 아이러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모르드개의 반응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만이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머리를 가리고 애도하고 있었습니다(12절). 이는 7장 8절에서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가리웠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애도의 표시는 그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대조되었습니다. 13절에서 하만의 굴욕에 대한 묘사는 에스더 4장 7절에서 모르드개의 가장 낮은 순간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레쉬와 이곳의 현명한 조언자들, 그와 거리가 있는 것은 6장에서와 같이 더 이상 그의 친구라고 불리지 않는다는 사실로 알 수 있으며, 그들은 모두 그의 운명이 결정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넘어지기 시작했고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넘어지다를 뜻하는 나팔의 동사 어근은 세 번 나오며, 마지막은 유한 형태의 강조 부정사 절대형이다.

모르드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만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음 절은 이 가장 중요한 접선이 끝난 후 독자들을 능숙하게 연회로 다시 데려옵니다.

14절에서 하만이 사건을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이전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각각의 사건을 재검토할 때마다 길어질 것이며, 그를 위로한 모든 사람들의 냉철한 반응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바라던 어떤 희망도 물거품이 되었으며, 그렇다면 그가 다음 연회를 위해 제때에 준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시의 호위는 하만과 같은 신분의 사람을 위한 법정 의례였을지 모르지만, 도착했을 때 그들은 그가 여전히 고통스러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서둘러 왕비에게 데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7장 1절과 2절.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와 함께 식사하러 갔다. 둘째 날 술을 마실 때에 왕이 다시 물었다. 왕후 에스더여, 당신의 청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귀하의 요청은 무엇입니까? 왕국의 절반이라도 허락될 것이다. 만약 실제로 포도주 잔치, 말 그대로 포도주 잔치가 식사가 끝날 무렵의 코스였다면, 긴장이 고조되는 상당한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왕이 에스더의 요청을 알고자 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에스더 왕후라고 직접 불렀고, 두 번째로 그녀의 청원을 완전히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왕의 인도에 따라, 그리고 아마도 궁정 예의를 지키면서 에스더는 자신의 모든 반응을 이중으로 서술하는 방식으로 형성했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대답하여 자기가 쌍으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세트 쌍에는 두 개의 조건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께 은혜를 입고 왕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조차도 뒤따르는 일을 위한 절묘한 준비였습니다.

에스더는 다시 한 번 더 공손한 호의를 사용하여 왕과 자신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호소했는데, 이는 그녀가 다음 문구에서 다시 언급한 요소입니다. 왕에 관한 한 자신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먼저 자신의 청원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다음 자신의 요청에 따라 백성의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유대인에 대한 하만의 칙령으로 인해 여왕이 살해된다면 왕의 명예는 크게 손상될 것입니다.

그녀의 간청의 다음 부분인 4절은 외교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책임이 있는 왕을 연루시키지 않고 하만을 고발할 수 있는 무대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하만은 왕국에서 두 번째로 왕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왕은 그에게 유대인들에 대한 분노를 표출할 수 있는 자유 통치권을 부여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팔렸다고 선언하면서, 에스더는 아직 유대인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자신이 유대인됨을 밝혔습니다. 학위 언어에 대한 그녀의 직접적인 인용은 어떤 모호함도 없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만은 이것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큰 공포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만이 멸절시키다와 노예로 삼다를 의미하는 동사들 사이의 편리한 유사성을 이용했을 가능성에 비추어 3장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팔렸다는 용어에 대한 에스더의 사용에는 여러 층위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을 위해 넘겨졌는데, 문자 그대로 팔렸습니다. 이 용어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만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 왕에게 돈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들은 말 그대로 팔렸고 크세르크세스는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왕은 하만이 행한 기만적인 말장난으로 상품권을 팔아 이것이 노예 매매 문제라고 생각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스더는 노예로 팔려가는 것조차도 충분히 용납할 수 있어서 조용히 지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절의 마지막 절은 세 가지 키워드가 복합적이고 모호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에스더 측의 외교적 언어의 전형이어야 했던 바로 그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조항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재앙이나 적이 없습니다. 단어는 차르이며, 이는 왕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과 동일합니다. 가까운 인용문입니다. 차르가 사람을 언급했다면 그것은 하만에 대한 경멸적인 발언이 될 것입니다. 그는 너무 무가치해서 그의 형벌을 완수하기 위해 왕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은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며, 이는 왕에 대한 최대의 존경과 하만에 대한 최대의 경멸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5절을 문자 그대로 읽은 다음 아하수에로 왕이 말했습니다. 그는 에스더 왕비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가득 채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구절의 시작 부분에서 '말씀'이 어색하게 반복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본문의 오류가 아닙니다. 대신 왕의 스퍼터링을 나타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는 너무 충격을 받아 숨을 고르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의 말에 대한 설명과 직접적인 질문 모두 그의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왕은 그 법령에 담긴 언어를 인식하지 못했고 에스더가 언급한 내용과 하만 사이를 연결시키지도 못했습니다. 하만의 실제 활동과 왕후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에스더가 하만을 직접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자, 대적, 원수라는 일반적인 용어로 6절을 시작한 다음 이 악한 하만으로 나아갔습니다. 간결한 기소였다. 그녀는 그를 유대인의 적이 아니라 원수라고 불렀고, 그래서 그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암시했습니다.

사실상 하만은 왕을 배반한 자이자 유대인의 적이었습니다. 여왕이 유대인이어서 사실상 그의 칙령에 따라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은 하만에게 소름 끼치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때 함께 주목받는 왕과 왕비를 마주한 하만은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혔다.

다음 이벤트는 압축됩니다. 그의 운명은 빠르게 결정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계시는 왕을 화나게 했습니다.

그는 여러 면에서 하만에게 속았으며, 에스더 자신의 속임수 때문에 어느 정도 그를 짜증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여왕이 자신을 공식적으로 멸망을 당할 백성과 동일시했다는 것은 참으로 굴욕적인 일입니다. 그의 분노한 퇴장은 그의 성격과 일치했습니다.

히브리어는 극적인 줄임표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용하자면, 그는 와인 코스에서 궁전 정원까지 분노에 차 일어섰는데, 이는 서두르고 혼란스러운 것을 암시합니다. 하만은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의 마음은 결정되었지만 아마도 하만은 왕이 다시는 스스로 행동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하만 인생의 마지막 아이러니는 유대인 왕비 에스더가 누워 있던 소파에 쓰러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돌아와서 그를 그곳에서 발견했을 때 간청하는 자세로 있었습니다. 왕이 의도적으로 이 행동을 잘못 해석했는지, 아니면 실제로 하만이 에스더를 공격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여왕을 범하는 것은 폭정과 다름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스라엘 역사상 왕위를 찬탈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첩과 동침했던 다른 시점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왕이 본 것은 그 칙령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의미에 대한 그의 딜레마를 해결할 비난을 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만의 탓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본문을 예민하게 읽으면 하만의 위태로운 입장에 에스더가 공모했다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왕이 없을 때 그녀는 이중적으로 하만을 자신에게 초대했지만 그의 운명을 봉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쨌든, 정의를 위한 조치의 깔끔한 시연에서 하만은 유대인들을 거짓으로 고발한 것과 마찬가지로 거짓 고발로 인해 죽을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서술의 극도로 간결한 것은 하만의 삶의 충격적인 마지막 순간이 지나간 활동의 흐릿함과 서두름을 암시합니다.

이전의 수많은 사례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 복수 주어는 수동태를 나타냅니다. 하만의 얼굴은 가려져 있었습니다. 9절에서 우리는 왕을 모시는 내시 중 하나인 하르보나에 대해 읽습니다. 그는 하만의 집 앞에 높이가 75피트나 되는 교수대를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왕을 돕기 위해 목소리를 낸 모르드개를 위해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왕은 그를 매달아 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르드개를 매달기 위해 마련한 나무에 하만을 매달았습니다.

그러자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 크기가 너무 커서 하만이 급하게 세운 기둥도 놓칠 수 없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만은 호기심 많은 질문으로 인해 모르드개를 제거하려는 의도를 밝혔습니다.

하르보나는 슬기로워서 그 사이에 하만과 모르드개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별이 떨어지는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왕의 간지러운 상황을 해결했습니다. 그의 말은 하만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두 번째 이유를 제공하여, 환관들과 다른 궁정 관리들에게 모르드개가 막 왕의 은인으로 기념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만한 키를 가진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치명적인 사업이었습니다. 크세르크세스는 하만을 교수형에 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만의 추락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지막 굴욕을 위해 장대에 그의 몸이 들어 올려졌을 때 완성되었습니다.

측정 대 측정 정의도 주목됩니다. 그는 모르드개를 위해 준비한 장대에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은 표면적으로는 법에 따라 운영하는 데 관심이 있었지만 겉보기와는 달리 하만에 대한 비난 중 하나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진노가 가라앉는 것의 의미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의 관심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과 인물에만 집중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왕의 명예를 위협하는 음모를 꾸민 하만의 운명은 결정되었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에스더 백성의 운명은 이 시점에서 그에게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8장에서는 처음부터 통치하는 왕후, 하만의 재산을 받은 사람, 왕의 명예로운 은인의 사촌으로서의 에스더의 정체성이 모두 이 지점에서 하나로 모였습니다. 이전에 왕이 모르드개를 인정한 것은 일시적인 전시였으나, 이 시점에서 그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자리인 크세르크세스 앞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아마도 명쾌한 순간에 왕이 되찾았을 인장 반지로 표시된 하만의 정치적 권력과 하만의 경제적 자원을 모두 받았는데, 왜냐하면 그가 하만의 재산에 대한 관리인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에스더가 다시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간구합니다.

그녀는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고 계획한 악한 계획을 중단시켜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다음 장면은 같은 날의 사건의 연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그녀가 추가하고 말한 히브리어 관용어는 이미 진행된 고위급 정치적 교류의 지속을 암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 재건에 필요한 사건의 빠른 연속은 법원이 과도한 의례에 의해 통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더욱이, 9절에서 셋째 달에 반칙을 작성하라는 언급은 상당한 지연을 시사하는데, 그 기간 동안 에스더와 모르드개는 유대인들의 운명에 관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점점 더 불안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에스더는 왕이 그녀에게 금함을 내밀어 줄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예고도 없이 왕 앞에 다시 들어갈 전망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열렬한 호소는 이번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울며 특히 하만의 사악한 계략과 관련하여 그에게 자비를 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자세는 첫 번째 간청과 확연히 다르다.

그 경우에 그녀는 멀리 서서 왕이 흠을 내밀었을 때에야 다가가서 그것을 만졌다. 5절에서 이르되 왕께서 만일 나를 좋게 여기시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면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파견에 관한 명령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아각 사람은 모든 지방에서 유대인을 멸망시키기 위해 고안하고 썼습니다. 내 백성에게 재난이 닥치는 것을 내가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이 파멸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두 부분이 아닌 네 부분으로 구성된 공식으로 시작된 에스더의 교묘한 탄원은 코셔처럼 눈에 띄게 좋은 토브(tov)와 올바른 캐셔(kasher)뿐만 아니라 그녀에 대한 왕의 존경에도 호소했습니다.

이러한 각 측면은 두 번 등장했으며, 선함에 대한 그녀의 호소가 각 세트에서 우선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옳은 것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전 법령이 확실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하만의 악한 법령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녀는 좋은 법정 절차를 따랐습니다.

말 그대로 디스패치를 반환하도록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하만의 완전한 이름이 추가됩니다. 신중하게 선택한 이 말은 왕의 이름으로 파견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이제 죽은 하만에게 그 칙령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정면으로 돌렸습니다.

그녀의 최초이자 주요 요청은 법령의 철회였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거부되자 더 폭력적인 다른 수단을 채택해야 했습니다. 7절에 이르면 제목이 분명히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왕비라고 불립니다. 모르드개는 유대인이라고 불립니다. 왕이 히브리어로 응답한 어순을 보면 이 추가 요청에 대해 약간의 분노가 있음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공의로운 행동을 앞세우며 '보라, 내가 하만의 재산을 에스더에게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안에 암시적으로는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아니면 그의 말로 또 다른 해석을 하자면, 하만은 완전히 현장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는 그가 두 가지 모두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유대인에 관해서는 복수형입니다. 당신이 보기에는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이것은 Xerxes가 그 사건과 더 이상 관련이 없음을 시사합니다. 그것은 그의 개인적인 세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모든 것에 대한 포괄적인 무관심으로 적합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왕의 인장반지로 봉인하세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왕의 반지로 봉인된 문서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취소 불가능성을 다시 언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는 다소 현실적인 평가일 수 있습니다. 결국, 주자들은 왕국 전체로 나가서 확고한 편견에 따라 행동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한 법령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었습니까? 유일한 의지는 그가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절인 9절부터 14절까지가 될 이 법령의 반포에 관한 서술은 3장 12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첫 번째 법령 및 그 주변 내용과 뚜렷한 언어적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명시적인 대응 조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것은 이제 하만의 입장에 있는 모르드개가 명령한 모든 것에 따른 것이었다. 목록의 첫 번째 수신자는 이전 수취인 역할에 없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첫 번째 법령을 빨리 알아차렸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배제하고 준비되지 않은 채 잡히게 하는 것이 악의적인 구성자의 의도였습니다.

이 법령에서는 주소 목록의 나머지 부분을 압축하고 주제넘은 제목을 제거했습니다. 이전 칙령에서 추가로 미묘한 변화는 동사 형태가 활성화된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개가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왕의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는 그것을 반지로 봉인했습니다. 그는 정부 택배를 통해 그것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전 법령과 달리 이 택배기사들은 뛰어난 마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탔습니다. 모르드개의 칙령(11절)은 왕이 각 성의 유대인들이 행동을 취하고 말 그대로 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직하도록 허락했다고 말했습니다.

11절의 나머지 부분은 광범위한 논평을 불러일으켰는데, 특히 어린 아이들과 여성들에 대한 언급인 타프 나심(taph nashim)은 구문론적으로 유대인 행동의 잠재적인 대상 또는 적군의 공격을 받는 유대인 여성과 아이들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더 나은지 결정하려면 이전 법령과의 비판적인 대조뿐 아니라 정확하게 전달된 용어에 주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칙령에서

멸하고 죽이고 진멸할 대상은 모든 유대인을 어린 아이부터 노인까지, 어린아이와 여자들이었다.

모르드개의 조서에서, 첫 번째 조서의 동일한 세 부정사는 직접적인 목적어로서 인용하자면, 그들을 공격하는 모든 군대, 헬, 백성과 지역,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여자들을 포함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어린아이와 여성은 앞의 내용과의 결합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것을 모호하게 만듭니다.

첫 번째 법령에서 그들은 적의 공격에 가장 취약한 대상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여기에서 이 말은 그들을 공격하는 사람들 바로 뒤에 나오며, 유대인들이 모든 지역에서 여전히 그들과 그들의 여성과 자녀들을 공격하여 원래의 법령을 이행하려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유대인 자기 방어의 직접적인 초점은 무장한 적들이었기 때문에, 정부 명령이 그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가장 적은 사람들에게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이전 칙령의 추가 직접적인 인용은 약탈을 허용하는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다음 이야기가 유대인들이 약탈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약탈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여성과 어린이를 학살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었다면 그 점에 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잘. 그런 요약은 없습니다.

대신 9장에서는 수사에서 죽은 사람의 수는 802일이고, 제국 전체의 적수는 7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모르드개는 이전 법령의 구체적인 문구를 인용하여 이것이 다시 구체적으로 대응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법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칙령의 조항은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칙령의 조항을 반영해야 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과 본문 자체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전면적으로 허가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입증합니다. 그 대신 그들은 첫 번째 법령에 따라 행동한 사람들의 결과로 발생한 도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나는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어린 여성과 어린이, 어린 어린이와 여성을 읽는 방법에 관해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12절에서는 이 일이 왕의 모든 지방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칙령은 이미 정해진 날짜인 아달월 13일에 끝났습니다. 13절에서는 첫 번째 칙령의 본문에 두 가지가 추가되어 재현됩니다.

첫째, 유대인들은 이날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둘째, 그들은 적들로부터 복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다룬 11절의 해석적 문제는 구문상의 모호함에서 비롯된 반면, 이 문제는 노골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복수보다 기독교 세계관에 더 이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어 어근 나캄과 그에 관련된 동사 및 명사 형태는 물론 비난받을 만한 개인적인 복수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악한 세상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복수도 의미합니다.

복수는 먼저 잘못된 것을 전제하고 나서 그것을 바로잡는 행동이다. 이는 명백하고 적절하게 징벌적이므로 궁극적으로 부당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격려의 원천이 됩니다. 하나님 자신이 가장 자주 복수를 집행하시지만, 대리인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하만의 범죄는 극악무도했으며, 그가 죽어도 그 영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칙령은 제국 전역에 학살을 일으키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여기서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의롭다함을 얻고 죽는 대신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15장 8절. 모르드개가 청색과 백색의 왕실 예복을 입고 큰 금관과 자색 고운 아마포 겹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에서 크게 기뻐하니라.

유대인들에게는 그 날은 행복과 기쁨, 즐거움과 영광의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방, 각 성, 왕의 명령이 있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어 기뻐하고 즐거워하였고 그 밖에 다른 족속들도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된 자가 많이 있더라.

4장의 모르드개의 굶은 베와 재, 6장의 임시 겔옷은 왕족의 영구 장신구로 대체되었습니다. 하만이 갈망했던 것을 모르드개가 주어졌고, 실제로 풍성하게 주어졌습니다. 겔옷 하나가 온전한 앙상블이 되었고, 하참은 면류관과 말 머리 대신에 모르드개는 자신만의 커다란 금관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금관인 테레 자하브(teret zahav)와 페르시아 왕족이 착용하는 왕관인 케투르 마추트(ketur machut) 사이에는 구별이 유지됩니다. 사실, 서술자는 이 시점에서 모르드개의 유대인성을 미묘하게 강조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타라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왕실 왕관을 가리키는 데 가장 자주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4장에서 본 애도, 금식, 울음, 통곡과는 대조적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빛과 즐거움과 즐거움과 존귀를 누렸고, 자발적인 기쁨은 그 자체에 수반되는 미슈테, 절기, 잔치, 모든 곳의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그 땅의 사람들(복수형) 아메하 아레츠(ameha aretz)는 비유대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유대인과 동일시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 식별이 의미하는 바는 질문입니다. 미트 야하딴(mit yahadim)이라는 단어는 에스더서에만 나오는데 여기서는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두려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동일한 두려움이 3절의 모르드개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에스더 9장 2절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파하드의 명사와 동사 형태는 모두 떨릴 정도로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두려움을 나타내며, 배타적이지는 않지만 주로 나타납니다. ,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름 없는 초자연적인 공포와 관련된 예언적, 시적 본문에서. 따라서 이는 비록 그것이 그것의 일부였을지라도 단순한 정치적 안보 이상의 무엇인가에 의해 이러한 동일시가 촉발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진정한 회심이 암시되었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아마도 가장 좋은 해석은 그들이 다양한 동기로 유대인이라고 공언했다는 것인데, 그 중 하나는 유대인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유대인의 자기 방어와 적들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기록에서 본문의 시간적 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9장의 처음 10절은 첫째 날의 사건을 묘사합니다.

1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하나의 복잡한 문장으로 날짜와 전개되는 긴장감을 강조합니다. 이날 두 가지 상충되는 법령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혈 사태는 불가피했고, 히브리어 본문에는 임박한 위기에 대한 주요 문체 지표가 있습니다. 왕의 이름으로 두 개의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의 표현은 단수적이다.

양측은 왕의 말에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적들이 그들을 지배하려는 희망도 일치했습니다. 이 두 진술 사이의 중심은 완전한 반전을 강조하고 설명할 승리를 요약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전복되었다'입니다.

동시에, 씩씩한 진실은 하만이 내린 치명적인 칙령이 모르드개를 처형하려고 했던 교수대를 다시 세운 것과 같은 방식으로, 또는 하만이 자신을 위해 계획한 영예를 모르드개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뒤집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여 기존의 법령을 근절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값비싼 무장전투로 이를 뒤집을 수밖에 없었다.

유대인들을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조직하고 함께 모일 권리가 주어졌습니다(2절). 아달월 13일에 사건이 전개되자 그들은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려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공격적인 행동 가능성을 암시합니다. 언어는 이와 같은 상황의 복잡성과 혼란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일반 백성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것처럼(3절과 4절), 모든 직위의 지도자들도 모르드개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법령의 결과로 유대인을 공격하는 것은 더 이상 공식적으로 후원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모르드개의 법령은 당국에 유대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허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9장 5절은 에스더서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 계속해서 격노하는 윤리적 논의의 중심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구절은 다른 민족적 공격과 다르지 않은 이방인 학살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가혹한 선제공격이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두 번째 법령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유대인을 공격할 의도가 없었을 것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 그들의 적들을 모두 쳤습니다. 대대적인 살육과 생명의 파괴가 있었고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했습니다. 이 구절의 나쁜 부분은 적들에 대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정의되지 않았지만 매우 불쾌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격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해칠 의도를 갖고 있었으며 이것을 그들의 완전한 파멸의 기회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공격적인 행동은 그들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취소할 수 없는 법령에 비추어 볼 때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전개는 내내 강한 반유대주의 정서가 조성되어 왔음을 암시합니다. 유대인의 희생자들은 원수, 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 인간들로 기록되었습니다. 유혈 사태가 진정되자,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적들로부터 안식을 얻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세 번이나 언급되었습니다.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6절에 나오는 수사에서 죽임을 당한 500명이 유대인을 공격한 자들을 의미한다면 수도에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큰 적개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숫자와 뒤따르는 수치를 과장의 추가 표시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에 의해 길러진 오랜 증오심은 합리성과는 동떨어진 생명력을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하만이 죽은 후에 페르시아의 거리에서 타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히브리어 본문에는 하만의 아들들의 이름이 두 개의 기둥에 걸쳐 있는데, 이는 아마도 고대 필사자들이 궁극적으로 장대에 매달려 있다는 착각일 것입니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유대인들을 공격했고, 그 결과 스스로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반유대주의와 반모르드게 반란의 지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만의 이름과 명예는 그의 후손들에게 이어졌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설명된 대로 이 행동은 하만의 후손을 단절시켰으며, 책에서 그의 존재를 정의했던 제목을 반복함으로써 요점이 이 지점에서 강조됩니다.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유대인의 대적이다.

그들의 몸을 공개적으로 목매다는 것은 일종의 굴욕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가지 별도의 진술은 유대인들이 적의 약탈물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특별한 자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9장 11절부터 14절까지는 왕과 에스더의 회담입니다.

왕은 에스더 왕비에게 보고할 때 원래 9장 6절에서 설명했던 것과 같은 말로 수산인의 사상자 명단을 반복한 다음 하만 아들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나머지 지방에 대한 다음 절은 직접적인 질문이라기보다는 '그들이 나머지 지방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궁금하다'와 같은 맥락일 수도 있다. 여기서서는 모호합니다.

이는 적대 세력이나 유대인을 가리킬 수도 있고, 둘 다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내재된 불확실성과 수산에 예상치 못하게 많은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왕은 에스더에게 추가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을 반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이것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에서 에스더의 담대함을 암시하는 것은 그녀가 자신에 대한 왕의 애착에 호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더 이상 자신의 요청에 이중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왕이 보기에 좋을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이 시점부터 내러티브 전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얽혀 있습니다.

첫째, 적대감의 위협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억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했습니다. 둘째, 입법적인 측면에서 이들 간의 축제는 확고한 기반을 갖추어야 했다.

후자는 여기에서 시작하여 이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상당히 확장되었습니다. 전자에 관해서는 하만의 초기 포고령과 모르드개의 반격 포고령으로 인해 전투가 하루로 제한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는 한, 그곳에서 500명이 죽을 정도로 치열한 전투에서만 승리를 거두는 날이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에스더의 요청은 계속되는 불확실성의 틀 안에서 공식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보고가 성채와 하만의 10명의 아들에 대해 다루었던 것처럼 그녀의 요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첫 번째 요청은 수사 전체로 확대되었지만 말입니다. 계획의 두 부분 모두 추가 공격을 방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수산에서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법에 따라 다음 날 행동할 수 있었는데, 이는 공격을 받았을 때 자기 방어를 의미했으며 하만의 아들들의 시체는 장대에 높이 들어 올려질 것이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들이 몰랐던 것은 제국 전역에 걸친 유대인의 저항의 정도였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그 수치는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14일째 수사에서 사건이 전개되면서(16절과 17절), 그 이야기는 그 결과가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전날 실제로 일어났던 제국 전역의 대결에 대한 요약을 다시 시작합니다. 나머지 유대인들은 조직을 갖추고 다시 자신들의 생명을 옹호했습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는 다음 세 절에서도 다시 올려퍼집니다.

이 점에 관해 본문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제국 전역에서 75,000명의 사람들이 유대인을 향해 공격적으로 행동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반유대 정서의 극렬함에 대한 논평입니다. 구제가 강조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측량 형식에 따라 약탈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약탈도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안도감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으로 그 날은 잔치와 기쁨으로 기념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이후 공식적으로 설립된 축제 기관의 특징이 될 것입니다. 이미 모르드개가 왕위에 오르고 조서가 반포된 후에 유대인들에게는 기쁨이

일어나고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칙령이 임박한 가운데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를 완성하려면 아달월 13일과 14일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장의 나머지 부분에서는 축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합니다. 18절에서는 수사와 광대한 제국 사이의 구별이 반복됩니다.

20절에서 본문의 초점은 구원의 이야기에서 기쁨과 안식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엄청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영속시키는 수단으로 옮겨갑니다. 유대인들은 즉시 특정한 날들을 따로 떼어 놓고 축제와 관련된 행사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개가 20절과 23절에 부림절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것은 기억을 보존하려는 의도로 확정되고 확증되고 부과된 것입니다.

이 구절의 반복적인 요소와 이 새로운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장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일반적인 언어의 영김은 계시록에서 다시 언급되지 않은 축제인 부림절 준수를 확인하려는 기념비적인 노력을 전달하기 위해 놀랍도록 적절한 형태로 함께 모였습니다. 시나이 출신. 22절의 두 부분으로 된 진술은 축제의 뿌리에 대한 유대인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 단어를 되풀이하면서, 그것은 그들이 원수들로부터 안식을 얻었던 날들, 대전환의 달(9장 1절)을 회상하게 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 날들을 같은 활력과 같은 방식으로 축하해야 했습니다. 구원을 경험한 원래 공동체.

24절에는 모르드개가 자신이 매우 능숙한 외교관임을 입증하는 또 다른 문서, 즉 공개 문서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는 매우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모르드개와 에스더가 아닌 하만을 이야기의 영웅으로 제시하기 위해 사건에서 왕의 역할을 조심스럽게 재구성하면서 하만을 완전히 연루시킵니다.

이는 심각하게 훼손된 왕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섬세하게 실행된 책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압축입니다. 모르드개는 하만의 칙령과 하만과 그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내놓으라는 왕의 명령에 맞서기 위해 왕의 이름으로 내린 법령을 교묘하게 작성했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에는 새로운 축제에 대한 입법안 뒤에 숨어 있는 수많은 세부 사항에 더 초점을 맞추려는 표면적인 또 다른 요약 진술이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20절에 언급된 앞의 편지와 마찬가지로 29절에 언급된 두 번째 편지의 분배를 감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절에 언급된 이 분배는 다시 127개 지방을 언급합니다. 1장. 샬롬, 평화, 진리는 모두 성경적 세계관에서 근본적으로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를 위한 이 본문의 강력하고 권위 있는 어조의 일부는 이미 존재하는 성경 언어와 결합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드개는 30절에서 화평과 진리의 말을 사용하여 널리 퍼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안정시켰습니다. 이 말은 스가라서 8장 19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활한 거짓말로 인해 혼란과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대조적으로, 동사 어근 샬렘과 관련된 샬롬은 보상을 통해 예절을 바로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대인의 승리는 사회 질서를 확립하는 데 어느 정도 작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장 1절부터 3절까지로 본문이 적절하게 마무리됩니다. Xerxes와 그의 힘이 반복됩니다. 그들은 충격파를 겪은 후 회복되지만 모르드개는 크세르크세스에게 권위를 공유하고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 언급됩니다.

그는 경제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왕을 돕습니다. 그의 뛰어난 지위는 그를 뒤따르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역사적 역할을 위한 무대를 마련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유대인 공동체를 위해 정부의 옹호자이자 대변인으로 활동했으며, 본문은 모르드개가 그의 모든 후손을 위해 평안을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는 다음 세기에 걸쳐 유대인들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중재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통렬하게 상기시켜 줍니다..